

철도폐선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Efficient Utilization of Disused Railroads Resources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Kwon gi-chang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안동시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 실개천 조성,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철도 역사박물관, 철도폐선을 활용한 레저시설, 철도 객차를 활용한 호텔 및 편의시설, 기존 역사를 활용한 쇼핑몰, 임청각 복원, 어린이 기차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I. 서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 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폐선자원을 공원이나 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폐선부지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동시 소재 철도 폐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문대섭은 철도공간의 “역사문화관광자원화와 지역재생”이라는 연구에서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폐철도 공간을 역사문화관광과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¹⁾.

이수호, 정성봉, 김시곤은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다각화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국내 폐선부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도시공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지원과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2. 사례조사

2.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역과 가정역(13.2km)구간의 폐선을 활용하여 조성한 기차마을은 레일바이크, 기차펜션, 증기 기관차, 산책로 등이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철도 폐선 자원을 전시, 체험, 이벤트 등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2 강원도 정선군

아우라지역과 가정역(7.2km)구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사례로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열차 테마 숙박 등의 체험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관광 네트워크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3 사이타마현 오오미아(일본)

일본 도쿄 외곽 사이타마현 오오미아 도심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만든 철도 박물관은 일본 철도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는 감동적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연면적 42,500㎡, 바닥면적 19,800㎡, 전시면적 9,500㎡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도심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3. 시사점

최근 철도의 선형개량으로 인해 철도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차별화 되지 않는 공원이나 관광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개발 계획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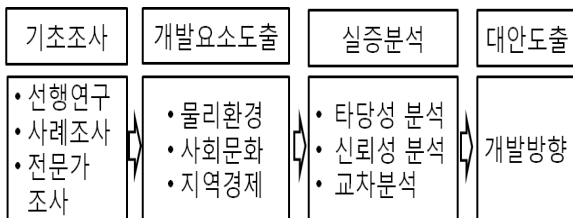
Ⅲ. 조사설계

1. 조사대상

2019년을 목표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화·직선화·전철화 사업으로 웅천, 마사, 이하, 서지, 안동, 무릉, 운산으로 우회하던 안동구간은 웅천, 광평, 신안동, 운산으로 직선화됨에 따라 기존 역사와 폐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역은 1930년 10월 15일에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 까지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폐선부지 주변에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급수탑과 임청각 등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2. 분석과정

선행연구와 사례분석,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발요소를 도출한 후 실증 분석을 통해 향후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자 한다.



▶▶ 그림 1. 분석과정

Ⅳ. 실증분석

1. 분석개요

선행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개발아이템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분석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SS 23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한 후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2. 활용방안

폐선이 예정된 안동역 부지는 낙동강과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 단절과 도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능과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집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현재 안동은 도청이전으로 인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낙동강과 도심을 연계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열린 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1 철도 역사 박물관

일본의 오오미야의 사례와 같이 기존 철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철도 역사박물관 조성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급수탑을 활용한 증기기관차 운행 등 체험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2.2 임청각 복원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기 위해 고의로 우회시켜 만든 중앙선이 이설됨에 훼손된 임청각을 복원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2.3 문화 쇼핑몰 및 생태하천 조성

현재 역사로 사용하고 각종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문화 쇼핑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선 부지내에 있는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 복원하여 수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4 어린이 기차공원

예정 폐철도부지내에 폐철도 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학습시설, 어린이 용품점, 어린이 병원, 유아원, 유치원 등의 시설물을 도입하여 집객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Ⅴ. 결론

중앙선의 복선화·직선화·전철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폐선 부지를 안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철도테마파크, 문화쇼핑몰, 임청각 복원, 생태하천 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객시설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 [1] 문대섭, “철도공간의 역사문화관광 자원화와 지역재생”, 철도저널, 제18권, 제3호, pp.17-23, 2015
- [2] 이수호, 정성봉, 김시곤, “철도 폐선부지 활용 다각화 방안”,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745-751, 2012.
- [3] 배웅규, 윤기학, 정종대,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4), pp. 111-128, 2010.
- [4] 정영범, 유우상, “산업 시설물중 폐선부지 재생을 통한 도심재생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2(2), pp.213-214, 2012.